

이 상 역
건설교통부 건축과
by Lee Sang - Yeok

공간이 주는 여유

Spatial Reserve

요즘 도시 사람들은 집 관리와 단속의 편리함을 선호하다 보니 주거문화가 자연스럽게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는 주거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는 32평형이다. 아파트 구조를 살펴보면 안방, 화장실, 거실, 조리대, 작은방, 앞뒤 베란다가 전용 25평안에 배치되어 있다. 아파트 내에서는 각 방에서 아무리 멀어도 10발짝 정도면 어느 곳이나 다다를 수 있다. 안방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 거실, 조리대가 있고, 거실을 지나면 작은방과 베란다가 나온다.

농촌의 주거형태는 안채에는 안방, 윗방, 부엌, 마루가 있다. 별채에는 사랑방이 있고, 안채와 별채 사이에는 마당, 마당 옆에는 가족우리, 화장실은 집 밖에 있거나 마당 옆에 위치하고 있다. 사람이 집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마루나 마당을 거쳐야 하고 하나의 일을 보려면 최소한 몇 분이 걸린다.

사람은 생활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감정이나 정서에 순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말은 사람과 생활공간 구조의 간격에 따라 마음의 여유와 정서적 표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농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땅을 밟고 가야 한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거나 정서가 불안하여 안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발을 신고 갔다 오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정서가 순화된다. 속담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제게 긴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이 변하여 처음과 달라짐'을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적인 주거공간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농촌의 주거형태에서나 어울리는 말이다. 즉 방과 화장실이 떨어져 있는 입체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갖다 주는 결과다.

도시의 생활에서 주거공간이 좁아지자 사람들은 감정의 여과 없이 표현이 빨라지고, 거침없어지고, 생각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곧 바로 표현하게 된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소리쳐도 온 집안 식구들에게 들리니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피해버릴 수도 없다. 감정과 정서의 순화를 거치지 않고 표현되다 보니 감정의 풀이 깊어지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힌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소리치면 아이들은 지은 죄도 없이 눈치를 보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싸움을 하는지 부부싸움을 하는지를 바로 알아버린다.

그러나 생활공간이 넓어지면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최소한 몇 번의 감정을 다스린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히 감정이 순화된 말이 나오게 된다. 또한 생활공간이 떨어져 있다보니 불만에 가득 찼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안정되면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잊어버리게도 된다. 농촌에서 살았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는 무슨 일로 싸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른 며칠 뒤에야 이웃집이나 형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서야 싸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가끔씩 여행이나 친척집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 지리를 물어보게 되는 경우 난감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낯선 시골길에서 사람을 만나 길을 묻게 되면 '한 10여 분이면 간다.' 아니면 '저 산모퉁이만 돌면 된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을 듣고 가다보면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리고 저 산모퉁이가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의 산모퉁이를 돌아야 찾아가는 곳이 나온다.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따질 수도 없고 참으로 기가 차다는 생각과 사고의 괴리에서 오는 난감함에 웃어버릴 수밖에 없다.

농촌의 주거형태가 이상적인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사람은 가끔씩 각박한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고, 고단함을 풀어줄 공간이 때로는 그리운 것이 사람의 심정이다. 그러나 현대적 도시의 삶 공간에서는 그러한 곳이 없다. 그러한 공간을 찾으려면 별장을 찾아야 한다. 우리네 수입으로는 별장은 고사하고 농가주택 하나 살 수 없는 형편이다.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사는 것이 좋은가,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떨어진 삶의 공간이 좋은가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두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정서와 감정의 여유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느긋한 삶이 좋지 않을까?

혼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공간, 조용히 모든 것과 격리되어 있고 싶어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강제된 삶, 감정을 숨기고 싶어도 억지로 뱉어야 하는 슬픔, 정서를 혼자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싶어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애증의 마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좋다. **㉨**